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나 침 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5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78호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2. 성시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II)
3.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 견학기
7. 만인을 제자로 삼는 교회
9.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이 아파요 가정을 품어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유난히 가정의 행사들이 이어져 있어서 들뜨고 분주해지기도 쉽다. 요즘 들어 유난히 깨진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가정의 행사들이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러한 분주한 행사들이 과연 우리의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가 자문해 보자. 사랑은 평소실력일진데. 평소에 못한 자식사랑, 부모사랑을 몰아서 해치우는 한풀이식 가정행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말로부터 시작하자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미안하다'는 말을 해 보았는가? 유교전통에 길들여진 상황 속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지 모르겠다. 부모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자녀에게서 부모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언제 부모님이 존경스러운가? 라는 질문에서 '미안하다'라고 말해줄 때였다고 한다. 우리의 대다수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이고, 그러한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물론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혹여 상처를 준다손 치더라도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상처는 금새 치유되고 말 것이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와 자매간에 '미안하다'고 말해보지 않겠는가? 이 언어는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요, 서로의 상처를 싸메는 치유의 언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자.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살맛이 나고 생기가 나는 것이다. 세상의 삶이 힘겨워도 가정만은 살맛나야 하지 않겠는가?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이란 을 타리를 떠날 수 없다.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죽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인간에게 가정만큼 영향을 주는 단체도 환경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으로부터 수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수많은 가정에서 상처받는 어린이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황폐해지고 갈라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앞으로 교회는 상처난 가정을 돌보고 치유하는데 역부족을 느낄 것이다. 이제 교회 는 상처난 가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적 극적으로 상처를 예방하는 사역에 집중하 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교회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요즘 무자격 남편과 아내, 무면허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한층 더해간다고 본다. 교회가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바르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인격이 형성되는 시점을 어머니 자궁 속에서부터로 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격과 기질이 여기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인간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모태에서부터 태아의 신앙교육을 교회가 도와야 할 것이다. 교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태아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아교육은 너무 늦다. 태아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에는 교회가 가정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욱이 가정위기로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자기 몸처럼 감싸 안아 돌보는 사랑의 정신이 요청된다. [편집부 최영조]



이달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성시장학재단설립에 대하여
성시비전을 통해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킬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꿈의 장학재단설립이 요원한 이때, 이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길

· 춘천세계레저총회유치를 위해
레저총회의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삶이 윤택해지는 기회가 되며 춘천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뿐만이 아닌 복음의 도시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 양양산불 피해주민들을 위해
자연재해로 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며, 이 일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 건강한 가정문화를 위해
이혼의 증가로 파괴되는 가정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청소년들과 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건강한 가정문화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도록

·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핵문제로 인해 국제정세의 불안과 고구려사 왜곡 및 독도문제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기도의 일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특 집

성시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Ⅱ)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차장 정재호 목사

왜 성시장학재단인가?

지난 시간에는 성시장학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시장학재단은 성시화운동에 적합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길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나라 운동을 일으키시고 확산시키시면서 다음세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을 준비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적 관심과 목표는 오직 사람이셨습니다. 갈릴리를 누비면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은 세계적인 인물을 꿈꾸며 교육하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좋은 인물은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20-40년의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보살피면서 긴 기간을 통하여 거목을 만드는 생명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린이가 자라서 결혼하기까지 성인이 되는 기간만 해도 30년은 족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성시장학재단을 통한 차세대 성시지도자 양성은 길게 보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한 사람만 잘 키워내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독교 인재양성의 실례들

한국 기독교는 지금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희망의 등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 인재양성의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레장학재단 두레연구원

■설립목적

두레장학재단 두레연구원은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나갈 일꾼을 기르기 위해 세운 크리스챤 지도자 육성기관입니다. 성서에 담긴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통일한국'을 이루어 그 '통일한국'이 세계선교의 깃발을 들고 세계로 뻗어가는 곧, 즉 '성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라는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준비되고 훈련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두레연구원은 이러한 '사람을 기르는 일'에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혜와 물질이 모아져야 된다는 판단아래 1989년 3월 김진홍 목사, 진기정 교장 등에 의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선발분야 및 인원

신학, 기독교육,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분야 등 각 삶의 영역에서 석·박사과정중인 자를 40여명 내외에서 선발하며, 또한 국내장학생 2년 과정을 마친자 중에서 국외장학생을 30여명 선발하여 2년 4학기로 운영, 지원합니다. 월2회 토요일에 세미나 개최, 김진홍 목사가 인도하는 에베, 조청강사들의 강의,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에 10여일간의 등빵노동수련회, 2년간의 연구원으로 있는 기간에 한 번의 해외연수훈련, 매 학기마다 한편의 논문제출을 해야 합니다.

■장학후원회

두레연구원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학재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막대한 기금이 있어 출발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돼지저금통, 할머니의 쌈지돈 그리고 은행지로를 통해 모아지는 정성들이 매월 수천만원의 장학후원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과 소망이 더불어 모이는 아름답고 귀한 장학재단입니다.

♣분당중앙장로교회 인재양성원

■설립목적

분당중앙장로교회는 교회창립초기부터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주력하여왔습니다. 건물보다는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적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신학과 교회 현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삶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연구해 나아갈 해외유학생들을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연인원 83명에 12억 이상의 재정지원을 했으며, 많은 학술모임을 해외, 국내에서 개최하면서 우수한 국내외 학자들이 한국 및 아시아 기독교와 세계기독교의 흐름과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선발분야 및 인원

신학의 전분야(구약,신약,교회사,조직신학,실천신학,성경언어 등)와 비 신학분야(기독문동,인문사회,자연과학,예술분야 등)에 걸쳐 30명 내외에서 선발하며, 한국에서 기본 교육을 마친 자로 해외박사과정에서 유학중인 자를 선발합니다. 교단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의 소유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등신학연구원

■설립배경

한국고등신학연구원은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원을 모태로 하여 국내외의 소장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들이 뜻을 모아 한국 신학의 세계화를 꿈꾸며 세계적 수준에서 본격적인 신학연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구축하는데 헌신하고자 2004년 봄, 설립되었습니다.

■장학사업 및 인적지원

한국교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범 교단적 인재양성사업을 비전으로 삼으며, 먼저 국내에서 향후 신학의 길로 입문하고자 하는 유능한 예비학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재정적·인적 자원과 함께 학문적으로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하며, 들째로 각종 프로젝트 모임, 연례해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신학 유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제의 장을 마련하므로 그들이 앞으로 귀국하여 한국교회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한국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장학사업의 극히 몇 가지 실례에 불과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왔습니다. 지금도 각 교회 내에는 장학위원회와 같은 부서에서 교육을 통해 차세대 일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교회가 힘을 합쳐서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도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속사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차세대 성시지도자를 기르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성시장학재단설립에 대하여

성시장학재단설립에 대해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성시장학재단설립을 위한 안전한 기금조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시화를 위한 차세대 성시연구원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업무를 성시화운동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각 교회에서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준하여 실행하되,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장학생들을 성시연구원으로 교육, 훈련하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각 지역교회의 인재들은 곧 하나님나라의 영적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다 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민족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시화를 위한 대의에 모든 교회가 헌신하고 연합하기만 한다면 성시장학재단설립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3면에 계속 ▶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김춘배 김규헌 김수영 이희영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집을지어요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문의처 254-0009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05 사랑의 집짓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여러 현장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주위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땀방울을 흘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일시 : 5월 1일 ~ 9월 30일
◆ 모집장소 : 춘천시 신북읍 4리 162-1 번지(상천초교 뒤)
◆ 대 상 : 각 교회, 단체, 중·고등학교, 대학교 (만 16세 이상)
◆ 모집인원 : 제한 없음
◆ 문 의 : 춘천시지회 254-0009
◆ 신청방법 : 자원봉사자는 행사 7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기 타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새시대를 향한 비전, 성시운동가 양성'

▶ 2면에 이어

■성시장학재단의 성시연구원의 운영에 대하여

성시연구원은 신학, 기독운동, 인문과학, 자연과학, 예술분야 등에서 약 20-30여명의 연구원을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구에 임해야 합니다. 연구성과들은 계간 혹은 월간으로 연구지를 발간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에 소개해야만 합니다. 특히 성시연구원은 지역의 성시화운동에 뿌리를 두고, 국내와 해외의 성시화운동의 주역들과 연대하여 하나님나라 확장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시대를 향한 비전

-성시운동가 양성, 그리고 민족사랑

한국기독교 초창기 역사에 보면, 청년을 지도하며 그들을 민족운동가로 양성시켰던 전덕기 목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덕기 목사는 청년이 깨어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가졌고, "마땅히 깨을 일" 그의 글에서 그러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천리 넓은 땅에 이천만 생령들의 코고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여 삼천 년 깊이 든 잠을 뉘라서 깨어볼고 원수는 처처에 일어나서 잠든 사람을 보는 대로 사지를 결박하여 놓았으니 혹 그 후에 잠을 깨일지라도 자유활동은 할 수가 없도다. 이런 때를 당하여 누가 능히 요나와 요한같이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잠든 형제를 깨워주리요 누구든지 성신의 감화하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 만일 성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이 세상 이치로 깨워주라 할 것 같으면 그 육신에 든 잠은 깨울 수 있더라도 영혼에 든 잠이야 어떻게 깨을 수 있으리오... 그런즉 우리 청년회 회원들은 성신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깊이 든 잠을 속속히 깨워서 마귀 결박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거하여 평강한 복을 받기를 원하오며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이 자유 활동과 좋은 사업을 많이 행하여 보기를 원하노라"(<신학월보>,1904.10)

전덕기 목사는 1897년에 조직된 한국교회 최초의 청년조직인 엡윗청년회(Epworth League)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그의 지도력과 노력에 힘입어 민족운동사에 공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 곧 구연영, 김진호, 김창환, 민영환, 박용만, 여준, 우덕순, 윤태훈, 이관직, 이동녕, 이상설, 이승만, 이시영, 이준, 이필주, 이회영, 이희간, 정순만, 정재면, 조성환, 주시경, 최재학 등이 엡윗청년회에 관여하게 되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대한 비전을 품고 청년 성시운동가를 양성하는데 자신의 몸을 던질 종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성시운동가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시화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양성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21세기 선교운동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가피아 독서 스쿨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대안 학교

이번 4월20일 강촌감리교회에서 기독교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그 방향을 찾고자 하는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모임이 뜨거운 열정과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기독교의 대안교육은 모든 교회에게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다. 표류하며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는다고 생각된다. 이는 실로 우리 사회의 깊은 병폐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춘천의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며 찾아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한국에서 가장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의 프로그램중 하나인 아가피아 독서스쿨이 춘천에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아가피아 스쿨이란 훌륭한 사람, 곧 인류의 리더를 배출하는 스쿨이며 학교와 교사, 그리고 부모와 학생이 함께 변화하는 스쿨이다. 그리고 아가피아 학습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학교이다.

다시 말해서 아가피아 스쿨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이다. 아가피아 학습을 활용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길러내고 체성, 감성, 지성, 관계성, 전문성, 지도성, 영성을 모두 갖춘 인류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인류평화를 온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다. 위대한 인물들의 인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셋째, 비전이 있는 학교이다. 사랑의 나라를 이루려는 비전을 가진 학교요, 그 비전을 세상에 이루어 내려는 자들이 모인 학교이다.

넷째, 인류유산이 있는 학교이다. 인류유산이 있는 학교란 경전을 배우는 학교, 고전을 배우는 학교, 그리고 전문도서를 배우는 학교이다. 인류유산을 배운다는 것은 실력을 가꾸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현들이 쓴 책을 직접 읽고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가피아 스쿨의 학습방법은 멘토학습, 독서학습, 경험학습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가피아

아가피아 독서스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아가피아'는 AGAPE와 UTOPIA의 합성어로서 그 의미는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나라의 평화를 이루어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다. 구약의 중심 가르침인 "정직과 성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서로 사랑하라"와 "가서 제자 삼으라"는 THREE GREAT COMMISSION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을 선택한다. Agapia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므로 하나님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을 양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아가피아 스쿨

현재 '아가피아 스쿨'(회장 김철안 목사)은 교회에서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아가피아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98년 기독대안학교 '꿈의 학교' 설립자인 송명현 박사에 의해 개발돼 전국 수십개 교회에서 독서교사 과정 및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독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아가피아 교과 및 학습과정

아가피아 교과 및 학습과정은 필수과목인 생활교과(기본생활), 비전교과(영성가치), 주제교과(독서스쿨), 지도력교과(현장학습)와 선택과목인 국정교과(수학·영어·외국어학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아가피아가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안교육이 되리라고 본다. 이 대안교육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하여 강촌감리교회 김성호목사(010-372-9100)가 지부장으로 또 나눔교회 유대현목사(011-346-2939)가 연락책임자로서 한 신하시게 된다. [http://school.agapia.or.kr 글 편집부]



본죽 전통 죽 전문점

건강과 정성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

영양맛죽
애물죽 버섯굴죽 새우죽 삼계죽
쇠고기버섯죽 참치야채죽 야채죽

전통건강죽
특전목죽 전복죽 흑임자죽 잣죽
단호박죽 녹두죽 동지팥죽

Tel. 263-2631 주 일 은 쉽 니 다 (석사동 호산부인과옆)

미국 유학 안내



장시 장임관목사

◎ 지역 : 미주 전역(LA 지역 우선)
◎ 대상 : 초등 5학년 ~ 중 2학년까지(단, 중 3의 경우 중 2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가능)
◎ 특징 : ※목사님 가정에서 직접 Home Stay
※신앙생활을 겸한 유학생활
◎ 비용 : 학 비 - 연간 5,000$ 내외(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생활비 - 월간 1,300$ 내외(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관 : 장임관 목사(LA 그레이스교회 담임목사/아가페 제자훈련원 원장/ 4009 Wilshire Blvd., LA, CA 90010/ 213-923-0885, 213-383-1616)
◎ 춘천지역 문의 : 권 태 풍 장로(춘천나눔성결교회) 011-367-2822 / 033)261-2809
♣춘천지역설명회 일시 : 2005년 5월 7일(토) 오후 2시
장소 : 춘천나눔성결교회 오신나실
설명 : 장임관 목사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CBS기독교춘천방송 개국 10주년을 기념하며 춘천방송 본부장이신 김진규 목사님과 운영후원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주환 목사님과 인터뷰입니다.

조영춘: 반갑습니다. 기독교방송은 기독교선교와 언론매체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춘천방송 개국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해 보실 때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텐데요.



김진규: 저는 기독교춘천방송(이하 CBS)을 생각할 때 개국 전 10주년과 개국 후 10주년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BS의 역사는 2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춘천기독교지도자들에게 CBS설립을 제안했을 때,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춘천방송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당시 80년대 분위기는 군사정권하에 언론통폐합이 자행되던 때였어요. 제가 1985년, 본사에 지역방송 설립을 위해 방문했을 때, CBS본사는 뉴스 광고가 금지된 상태에서 지방국 개설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춘천에서 초교파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지역의 중요한 숙원사업으로 승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림대 총장이셨던 현승종 총장님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일반시민 대표들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으로 방송국 설립에 서광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들라요. 그런데 춘천이 먼저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보다 청주방송국이 먼저 허락이 떨어졌어요. 좋아했다가 얼마나 낙심했는지요. 몇 달 동안 의욕상실이 되었다가 다시 힘을 내서 제2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춘천의 유권자가 11만명이었는데, 5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받아들여져서 설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BS의 설립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춘: CBS설립과정을 들으니까 지나간 세월들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저도 CBS설립을 위한 시민걸기대회에 참가한 생각이 납니다. 시청광장에서부터 중앙로를 거쳐 공설운동장까지 찬양을 부르며 걸었는데요. 가슴 벅찼던 감동이 되살아나네요.

김주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집회차 나가 있어서 춘천에는 없었습니다만, 걸기대회 후 경품추첨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학생이 자동차 1대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정재호: 목사님, 그 당시 춘천지역의 교회들의 참여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주환: 제가 생각하기에 춘천지역 교회의 약 80%이상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춘천지역의 감리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추진했고,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당시 5000만원씩 헌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앙감리교회에서는 방송국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송신소를 세워주셨습니다. 춘천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CBS는 춘천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조용기, 신현균, 김선도 전가화 목사님 등이 오셔서 대규모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헌금까지 약정해 주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시민들의 뜨거운 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 그 당시 5000만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저도 감동적인 헌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안동규)에서는 200만원의 헌금을 모아 전달해 주셨고, 세길교회 박장로님은 500만원을 은행대출로 헌금하고, 10년 동안 갚아서 작년에 끝났다고 합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CBS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또한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CBS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중, 특별히 교회 협력을 당부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김주환: 저는 현재 운영후원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이 없이는 CBS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CBS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독교방송국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대지는 구입해 놓았고, 앞으로 건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오셨던 그 열심이 기독교방송건립에 전심전력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저는 요즘 기독교방송국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에 기독교회관이 필요합니다. CBS가 CBS사옥을 짓고, 연합회가 들어오면 CBS가 주인 것처럼 생각될 것 같아요. 저는 늘 CBS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래요. 춘천기독교연합회 회관을 건축하고, 과거 종로5가 기독교회관처럼 CBS가 연합회 회관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어 더욱 기독교연합회가 활성화 될 뿐 아니라, CBS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조영춘: 참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모델도시로 효과적인 교회연합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어요. 연합은동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개국 10주년 기념행사계획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저희들이 이미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는 5월 1일(주일), 오후 2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는 강원대 백령문화관입니다. 강사로는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축행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들을 위한 축하음악회가 6월 4일(토) 오후 7시, 한림대 일송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소리엘 라이브콘서트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주환: 모든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몇몇 교회의 참여만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되리라 확신합니다.

조영춘: CBS는 기독교 선교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언론매체로서 많은 사랑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더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시 : 2005년 4월 20일
진행 : 조영춘
글정리 및 사진 : 정재호, 김미경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를 다녀와서

이영길 선교사(인도 선교사)

우리 가족은 춘천의 ccf와 비하르선교협의회 대표단과 함께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대표 김익환 목사)를 방문했다. 필리핀은 우리 가족이 선교를 위해 인도로 떠나기 전 전도여행을 위해 들렀던 곳이다. 그 때 앙겔레스에서 한 달간 사역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는 바로 그 앙겔레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10년 전 방문했을 때는 대규모의 화산폭발로 도시가 휩쓸리는 참사를 겪은 지 얼마 안 되던 때였다.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는 그 화산의 참사를 당한 지역에 정착해 불모의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해내고 있는 곳이었다.

우리 일행은 인도 비하르의 사역을 위해 필리핀 농군학교의 교훈을 배우고자 에썼다. 농군학교는 화산으로 피폐해진 땅을 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바꾸는 흙살림 사역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척해 지금은 33,000여 평의 부지에 교육관, 농장, 운동장, 생활관을 세우고 근로, 봉사, 희생의 가나안 정신을 필리핀에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그 유명한 식탁 구호도 식당에 가보니 뚜렷이 써있었다.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한 끼에 네 시간씩 일하고 먹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본관 로비에는 ,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마6:33의 말씀이 쓰여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농군학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 분의 나라에 대해 환기시키고 있었다.

농군학교는 부지의 구성만 보아도 그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마을이 널리 보이는 산등성이에 세워진 가나안의 제일 높은 곳에는 기도처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교육관이,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운동장과 농장이 세워져 있는 구조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토지 사랑이라는 3대 사랑의 중요성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김익환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필리핀 가나안을 둘러보면서 무엇보다 강하게 느낀 것은 정신개척의 중요성이었다. 불모의 땅을 기름진 땅으로 개간한 현재의 모습은 땅의 개척 이전에 마음의 개척이었고, 불모의 사상을 몸으로 일깨워 세운 사상의 승리였다. 그러한 정신개척의 바탕 위에서 흙을 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화산의 용암재로 30cm나 뒤덮인 땅을 지속적으로 유기화시키는 작업은 흙의 생태적 환경 조성이 작물 재배에 우선한다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이 땅 위에서 농사와 과수가 이루어지는데, 인도에 많이 재배되는 망고의 경우, 인도는 1년에 한번 수확하다가 요즈음에는 2년에 한번 수확될 정도로 결실이 미비한 데 비해, 농군학교의 망고는 1개월 반 만에 계속 수확을 내는 기이한 현상도 인상적이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늙지도 않았으면서 늙은 척 하지 말자." 등의 구호가 농군학교의 현실 속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 농군학교 현장 견학



◀ 센터앞에서 [필자의 가족과 김익환(가운데) 선교사]



▼ 현지교인들의 합동 결혼식

인도 비하르의 가나안운동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토지 사랑이라는 3대 사랑을 중심으로 개척의 경험을 차곡차곡 축적하여 갔으면 한다. 농군학교 방문 후에는 마닐라에 방문하여 필리핀 예수전도단, 세생명교회, 유니그룹 등을 방문했다. 전도단은 예전처럼 마닐라의 대규모 쓰레기처리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세생명교회는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 모델을, 유니그룹은 10여개의 회사들이 모여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우쳐 가고 있었다. 특히 유니그룹이 제작한 영화 "Heaven's Cradle"(천국의 요람)은 유니그룹의 직원들이 직접 배우로 나와 만든 영화로, 나환자들을 주제로 만든 것인데 뉴욕영화제에서 최고 드라마상을 받을 정도로 좋은 기획이었다고 한다. 마닐라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수제비누 제조법을 이기영 선교사님에게서 배우고 떠났다.

필리핀은 앞으로 아시아권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았다. 우리 비하르도 가나안 운동을 위해 현지인을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에 연수 파견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방문한 팀과 함께 나누었다. 앞으로는 선교국과 선교지의 협력뿐만 아니라 선교지와 선교지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곧 인도 비하르 땅에도 가나안농군학교가 세워지길 기대하며...



▶ 개척의 흔 앞에서
▶▶ 현지인 결혼식에서 신부들을 축복하는 목사들

KTT 건국항공여행사
KUNKUK TRAVEL CO.,LTD



KUNKUK.TRAVEL.CO.,LTD
대표 김 진 표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말호광장에서 강대후문 방향)
tel 033-251-2292 fax 033-252-2292
h.p 011-9058-2290
email jp1015@daum.net

백조비니루 강원총판



벽지 및 바닥제
전문지공업체
대표 손 종 금
인성병원건너 공익상회
연락처 전화 033-254-3428 / 033-257-3428
야간 033-254-6474 / 핸드폰 011-366-3428

성 시

성시화 운동은 새 사람 창조 운동이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여~ 그 존재의 이유를 회복하자!"

글 김성호 목사(강촌감리교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開天), 땅을 만드셨다(開地). 그리고 창조 사역의 절정인 사람을 지으셨다(開人).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 정말 흥미롭다. 하늘과 땅의 창조 역사(開天과 開地)는 무에서 유를 이루는 '바라' 창조였다. 그리고 이미 창조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시는, 자신이 창조하신 물질을 사용하여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에 따라 재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아사' 창조이다. 그런데 사람은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야탈' 창조하셨다.



창조사역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이다. 골로새서 1:16절에서 말씀하였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 창조 사역의 목표가 인간 창조에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인데, 흙을 뜻하는 아다마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19세기 해부학과 생리학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였다. 94종의 흙의 원소 중에서 70여 종의 원소가 인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흙을 뛰어넘는 존재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창2:7)"

식물, 동물, 인간, 이들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식물은 의식이 없는 생명을, 동물은 의식이 있는 생명을, 인간은 자의식, 곧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생명체로서 다른 생명체와 엄연히 구분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을 당신과의 대화와 사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인격적 닮음이요, 도덕적 닮음이요, 영적 닮음이요, 사회적 닮음이요, 예술적 닮음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의 참 가치와 귀중함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애정의 대상이라는데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데 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체로 지음 받았다는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사람의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적이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난 자는 없다.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땅엔 그런 목적도 이유도 상실해 버린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회복해야만 한다. 사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춘천 성시화운동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開人)운동이요, 인간 재창조 운동이어야 한다. 땅의 것-흙으로 지으시고, 하늘의 것-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건이 인간 창조(開人)의 역사이다. 그 창조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구별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다. 지금 것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지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엔 반드시 새롭게 지어진 거룩한 새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필요한 운동이 성시화운동이다.

성시화운동은 바로 새 사람을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다. 성시화운동은 새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 새 하늘의 생기를 받은 새 사람이 사는 곳,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운동이요, 도래할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한 유대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직전 천사들에게 의견을 물으셨다. 그러자 정의의 천사는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서로에 대해 갖가지 종류의 악행을 저지를 것이며 잔인하고 부정직하며 불의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번에는 진리의 천사가 말하였다.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거짓 속에 살 것이며 서로를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일 것입니다." 거룩함의 천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따르고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가장 큰 총애를 받던 자비의 천사가 입을 열었다. "창조하시옵소서. 인간이 죄를 짓고 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벗어날 때에는 제가 그들의 손을 잡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겠나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간이 과거에 이루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비로 받아들이신다.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누구나 자비의 천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사람 창조 사역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기고자의 신학과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성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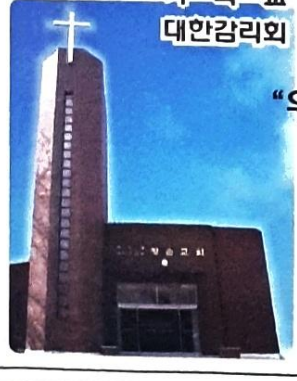


오늘은 춘천을 우리의 구역으로
내일은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담임목사 김 창 수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710-11
☎ 033) 256-5534 FAX254-4534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촌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담임목사 김 성 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1리 255
☎ 033)261-0035 / HP 011-372-9100

만인을 제자로 삼는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세인교회(길근수 목사)편입니다.

세인교회는 늘푸른교회(윤태호 목사)가 창립 10주년을 기하여 세운 기념교회로 2000년 3월에 설립되었다. 늘푸른교회 사역자로 일했던 길근수 목사(김선미 사모)가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자 하는 뜨거운 일념으로 23명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석사등에 세우게 된 것이다.

기자단이 세인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교회 기도실에서는 10여명 남짓의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의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리라. 따뜻하게 맞이하는 길목사, 아담한 풍채에 아름다운 미소가 돋보이는 분이다. 세인교회는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어린 교회이지만 이미 180여명의 성도들을 헤아리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수도권의 신도시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춘천과 같이 인구변동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고속성장이다.

세인교회의 원동력

세인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길근수 목사는 웃으며 세인교회의 설립비전을 소개한다. 세인교회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World Christian Community)의 약자로서 4대 비전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는 공동체, 살아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 중심적 교회, 세계선교의 중심을 이끄는 선교 지향적 교회, 21세기 교회의 성경적 상을 제시하는 개혁적 교회를 지향한다.'

멋있는 비전이다. 그러나 아무리 구호가 좋아도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길목사와 교우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교회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것이 치열하게 묻어난다.

세인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프로그램은 이름부터가 독특하다.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길라잡이반', 신앙개념을 확립시키는 '바른 신앙개념학교', 1년에 성경을 2독하는 '토요 성경통독교실',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어부들학교',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셀 트리니티'(Cell Trinity), 그밖에 실습선교과정인 단기선교훈련, 초대교회의 사경회 전통의 계승한 봄 · 가을의 사경회 등이다

교회의 본질

길목사는 교회의 본질은 '교육과 선교'라고 단언한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듯이 교육에 의한 강한 제자공동체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길목사의 소신이다. 그리고 이렇게 길러진 제자들은 다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계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것은 물론이다.

성경에 미친(?) 목사

길목사가 주님을 위해 전임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중학교 3학년, 앙구침례교회 시절이었다. 그 후 길목사는 침례신학대학교(B.A)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Th.M)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늘푸른교회 전도사와 부목사를 거쳤다.

길목사는 스스로 '성경에 미친(?) 목사'로 불려지길 원한다. 그런 탓에 길목사의 강해 설교는 본문에 깊이 뿌리내리고, 현대적 상황에 맞는 적용설교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5년 동안 주일마다 4복음서만을 깊이 있게 강해하였고, 수요예배에서는 구약을 차례대로 강해하고 있다. 길목사는 교회의 탄생과 부흥, 성장에는 반드시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동반되었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믿는다.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은 세인 교우들은 인위적 방법이 아닌 강력한 말씀의 역사로 부흥을 꿈꾼다. 곧 이것은 성경적 설교 운동으로, 성경읽기 운동으로, 성경대로 살기 운동으로, 성경적 교회세우기 운동으로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운동으로 교우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세인교회의 사역

세인교회는 젊은이 사역에 관심이 많다. 젊은이 사역을 특성화시켜 I부, II부, III부로 나뉘어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0~70여명의 젊은 청년지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각 대학 캠퍼스에는 잘 훈련된 담당 워커(Worker)들이 길목사의 사역을 돕는다. 워커(Worker)란 청년사역자 훈련을 마친 무보수 사역자들을 말한다. 교회 설립 초기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단기선교훈련은 10박 11일 프로그램으로 의료봉사와 건축, 전도 등을 내용으로 하며 젊은이들이 주축을 이름은 물론이다. 또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밀티 사역연구소(M.M.I)를 운영하고 있다.

세인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세인교회가 선교와 교육으로 투자되는 비율은 전체 재정의 50~60%선.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교회의 설립목적이기에 기쁨으로 헌신한다고 길목사는 말한다.

세인교회는 초기부터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그리고 보안이 요구되는 ㅋ국, ㅈ국 등 10여 곳에 있는 해외 선교사와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틈나는대로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위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목사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제일 부족한 점이 많다고 토로한다. 아직은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 교회이기 때문일까. 길목사는 앞으로 역량이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길목사의 독특한 목회방식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길목사와 김선미사모는 춘천에서 시작된 예수제자운동(JDM)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길목사는 한국제자훈련원(KDTI) 3기 출신으로 그의 목회방식에는 예수제자운동의 스피릿(spirit)이 담겨있다고 누군가 귀띔한다.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간사로 헌신하였기에 그럴 만도 하다.

끝으로, 가장 존경하는 멘토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길목사는 말한다. "예수제자운동 대표로 섬기시는 윤태호 목사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저의 신앙과 목회철학 형성의 80~90%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유산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유산을 저의 목회를 통해 보다 성숙하게 꽃피우고 싶습니다." 신교단체와 교회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길목사,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를 통해 21세기의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상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세인교회 홈페이지(www.lovejesus.or.kr) / 취재 최상도 / 사진 김미경]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1월준공)



휴식공간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월~토요일 까지 시간 : 새벽 6시, 낮11시, 저녁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10시부터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말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의암댐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033)262-7923~4, 262-5694, 010-6388-7929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치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소개합니다

강원도청소년쉼터



강원도청소년쉼터

2005년 3월 춘천YMCA 4층에 개소하여 지난 4월 12일에 개소식을 갖은 '강원도청소년쉼터'는 가출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아 춘천YMCA가 운영하는 청소년복지기관이다. 사회 및 가정,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소외된 청소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청소년쉼터 목표

첫째, 가출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 및 학교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둘째, 전문 상담과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가출 청소년의 자아성장을 돕는다.

셋째,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과 캠페인에 힘쓴다.

넷째, 강원도 가출 청소년 실태 조사와 청소년복지에 대해 연구한다.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 가출청소년일시보호 : 무료숙식제공, 응급의료지원
- 청소년 상담 :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 및 전문심리검사 등
- 사회적응훈련 : 가치관정립, 대인관계 훈련, 자치활동 등
- 교육활동 : 성교육, 약물교육, 부모교육, 멘토링교육 등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지역사회 봉사활동, 각종 문화공연 참여,
- 가출예방캠페인 : 가출 예방 연중 캠페인, 학교 및 가정 부적응 예방 캠페인
- 춘천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홍보활동



이용안내

※쉼터에 머물고 싶을 때 .

- 대상 : 남자 청소년(정원 15명 이내)
- 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개인사정에 따라 다름)
- 입소절차: 간단한 초기 상담 후 입소 가능

※상담을 하고 싶을 때

- 청소년긴급전화 1388 전화: 033)255-1002

[홈페이지 : http://www.gw1318.or.kr
문의전화 : 033)255-1002/
주 소 : 춘천시 후평1동 849-6 춘천YMCA 4층]

영혼의 양식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 (요일 4:18-21)



이 춘 일 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 강원순복음신학교 학장)

며칠 전 남이섬 입구의 어느 음식점 마당에는 명자나무가 빨간색의 꽃을 피우고 있었고, 수많은 벌들이 그 꽃들을 드나들면서 또 다른 자신들만의 횡복과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 쉴 수 없는 날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나 자의적으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을 약동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으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입니까? 곤태로움과 저항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며, 모든 생명에게 살맛이 나도록 합니다. 사랑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원칙입니다.

사막은 그 끔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모래밭이며, 생명체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막은 겨울이 비가 오는 우기인데, 그 사막에 비가 내리면 생명이 다 살아나서 파란 풀이 깔립니다. 죽은 것같이 보이던 땅이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랑이 메말라서 온 것입니다. 가정문제, 직장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간관계가 사랑 결핍증에 걸리면 다 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믈랐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갈 6장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당시 노예 문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노예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가족들은 모두 자유인이고, 혼자만 노예가 된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한시적 노예입니다. 빚을 졌다든지 하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몇 년 등안만 노예로 계약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진해서 된 노예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평생노예가 되겠습니다하고 자진해서 노예가 된 경우인데, 이때에는 기쁘게 생각한 주인이 그 노예의 귀에다 귀고리를 달아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도망갔다가 다시 집혀온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들에게는 몸에다 인두로 화인을 찍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 둡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도망갔다가 집히온 노예임을 금방 알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에게 '스티그마' 노예가 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비록 어둡지만 어둡다고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밝아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기독교인 가정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이느 한 쪽이 우월성을 가지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최고의 인격체로서 존경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나기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사랑의 불을 옮기는 자들이 되어서 사랑의 열기가 가득한 거룩한 성시 춘천을 이루어나가는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함, 스티커, 전단지, 포스터, 카다로그, 서류봉투, 서식
봉사용 단체복, 유니폼 단체T, 현수막, 실사현수막, 판촉물, 행사 기념품
Top Pia 종합광고 기획사
피티피아
대표 최 성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TEL : (033) 263-5152
E-mail : chsch1784@yahoo.co.kr FAX : (033) 242-5121

방송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CBS춘천방송은 춘천지역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설립된 선교기관으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대중을 향한 선교방송이며, 특별히 CBS TV는 순수복음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1) CBS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라디오:FM93.7, CBS TV:스카이라이프162번, 강원케이블 73번, 인터넷방송 www.cbs.co.kr)

2) CBS춘천방송 운영에 동참해 주십시오.

▶ARS 전화 한 통에 1천원 헌금됩니다. ☎ 060-700-0937)
▶온라인 농협 : 203-17-000933 조흥 : 515-03-003825
신협 : 04073-12-002331 예금주 : 기독교방송
▶지로용지 (지로번호 : 800681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 255-2001~2

CBS춘천방송 본부장 김 진 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링 안에서 가정 안에서 페어 플레이를」

줄리아. 28세. 어성다운데가 없는 우울한 얼굴. 180cm의 키. 몸에는 여기 저기 십여 군데나 문신이 새겨져 있음. 미모와는 거리가 먼 이성.

줄리아는 어렸을 때 술주정꾼 아버지의 끊임없는 횡포에 시달리며 자랐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남자처럼 키가 크고 우락부락 할까?' 줄리아는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14세 때, 사춘기에 들어, 친구들과 어울려 불량하게 방황하기도 했고,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보기도 했고 섹스에 빠진 아이들과 어울려 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정신이 들었다. '이것은 아니다.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그 끝이 너무도 뻔하다' 그리고 우울하고 어두운 집, 이떻게 하면 그 지겨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운동을 시작했다. 유도, 태권도에서 비롯하여 킥복싱에 이르기까지 달려들지 않은 운동 종목이 없을 정도로 운동에 열중했다.



줄리아는 외롭고 힘들지만 홀로 일어서는 길을 찾았다. 운동을 하는 동안 줄리아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 자신의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 그것이 신기하며 감사했고 땀을 흘려가며 뛰는 동안 자기 안에 있던 나쁜 에너지들, 이를테면 지옥 같고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원수처럼 지내던 가족의 의미와 증오, 원망, 자포자기, 절망감, 열등감 등 이디로인가 내이 뿜고 싶었던 울화가 하나씩 둘씩 빠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4:10)

그렇게 운동에 열중하면서 18세 때 결혼을 했다. 남편은 15세 연상의 증년 남자.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악다구니를 벗어나 나이 많은 신랑에게 보호를 받아가며 새 살림을 차리면 행복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15세 연상의 남편도 역시 믿을 것이 못되었다. 술도박, 무책임... 딸들이 태어났지만 아빠 노릇을 할 생각조 없었다. '이떻게 인생이 이렇게만 이어지는가...' 줄리아는 기가 막혔다. 두 딸과 살아갈 길도 막연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줄리아는 결심했다. 남편과의 이혼을... 결연하게 홀로 서기로 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결혼에 실패를 한 노여움에 대한 분풀이처럼...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항거처럼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운동에 열중하는 동안 다시 원망이나 슬픔이 사라지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여성으로 행복히 본 일이 없는 줄리아 자신이 운동을 몰랐다면 마약 중독자나 창녀로 전락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녀는 몸을 떨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비록 여성다운 미모를 타고 나지 못했지만 남다른 운동 자질(資質)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소서"

줄리아는 퀸투를 택하고 글로브를 낀 뒤에 링 위에서 뛰었다. 그것은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뒤엉켜 살던 고통과 무책임한 남편과의 결혼생활 못지않게 견디기 힘든 연습의 되풀이였다. 그러나 줄리아는 이를 악물었다. 어렸을 때의 가난과 엉망으로 끝난 결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길은 이것뿐이다. 그렇게 이겨낸 연습은... 1996년, 세계복싱협회 웰터급 챔피언인 제인과 싸워 그녀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줄리아를 복싱계의 새로운 인물로 떠올리게 만들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성 복싱의 선두 주자가 된 줄리아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링 안에서 페어 플레이를 하며 승리를 목표로 하듯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페어 플레이 정신을 지키며 살아 갈 것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우리 두 딸을 지켜 주지 못했지만 나는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딸들을 지켜 줄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줄리아는 드디어 어머니로서 딸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과 삶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성이 되었다. 줄리아, 그는 오늘도 글로브를 끼기 위하여 손과 팔에 붕대를 감는다. 그러나 그것은 압박이 아닌 보호의 힘을 지닌 신비한 힘이 되어 줄리아에게 신념을 더해 주고 있다. 그리고 두 딸을 위하여 그는 오늘도 링 위에 올라선다.

주부편지에서



예 향

내일의 사람

한 소녀의 슬픈 사랑이야기가 있다. 제인 테일러 양은 대지주인 큰 부잣집 딸이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이 집에 한 청년이 들어왔다. 그는 일을 구하는 방랑자였고 그 집의 머슴으로 고용되었다. 그런데 제인이 이 청년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을 안 아버지는 몹시 노하여 청년을 내쫓아 버렸다. 아버지와 딸이 며칠 동안 말다툼을 하였다. 말은 청년의 정력성을 보았고, 아버지는 그의 현실만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강제로 둘을 갈라놓았고 청년은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났다. 이 청년의 이름은 제임스 가필드 미국의 장군, 하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오늘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들은 내일의 사람이니 그들의 가능 성과 정력성을 보고 교육하여야 하지 않을까.



사진의 명가
귀 빈 스 튜 디 오
[주공 1단지 시장 옆]
▶ 백일·돌·웨딩사진촬영
▶ 교회임직 가족사진 촬영
대표 신 병 철
(순복음춘천교회집사)
전 화. (033) 253-8608 / 휴대폰. 011-377-2599

聖地로의 특별한 초대
♥ 성지 순례 ♥ 여권 비자
♥ 단기 선교 ♥ 항공 발권
성지순례 프로그램 센터 강원지부
우리여행클럽 ☎ 242-6400

/ 포 / 토 / 에 / 세 / 이 /



비전의 공간

맥놓아 바라본
줄무늬 유리창 속으로
갑자기
Magic Eye의
새 세계가 열린다

정상적으론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넓고 환한
선명한 입체
비전의 공간이다

눈을 깜박일 때마다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환하게 나타나는...

글 곽 영 준(서부감리교회 담임목사/시인)

독자의 소리

일기 기도문을 씁시다.

김 용 배 장로(소양성결교회)

한 등안 매일 아침 묵상기도 드린 것을 즉시 메모형식으로 남겨 일기를 대신해 기도문을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보고드리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의 성사를 기도하기도 하고, 본 대로 느낀 대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글로 남겨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바는 우리가 아침마다 입을 시작하면서 하게 되는 묵상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이기도 하고 서원이기도 하며, 또한 자신과의 다짐과 결심과 포부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희망과 용서와 사랑이 포함된 자기 체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혜 뜨기 전 드린 기도의 결과를 혜 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일기식 기도문은 때로 마음을 다스리는 금도 되고 때로는 큐티도 되고 자아성숙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한편의 일기기도문을 올리면서
아이는 아이들 나름으로 어른은 어른 수준으로 간단하면서도 보람된 기도일기를 쓴다면 그 기도가 꽃이 되고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제단을 날마다 향기롭게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하여 감히 소개와 권면을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
출근길에 시장 골목길 좌판에 앉으신 아주머니, 할머니들을 보았습니다.
벌써 아침 햇살이 드리워 이마에 땀방울이 돋더이다.
큰길에는 관광객과 해수욕 차량들이 매연을 뿜습니다.
더위로 인적도 뜸한 시장 골목길에,
하나님!
오늘은 그곳에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골목길 가득 행복한 소란이 너덩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작은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마저 저들 위에 머물다 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4년 7월 20일 -

삶속의 미담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담임목사)는 지난 3월 13일(주일) 장학헌신예배를 드리고, 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내 고등학생 6명, 대학생 4명, 교회 외의 고등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제일장로교회는 매회마다 1인당 고등학생에게 연간 100만원씩, 대학생에게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박상호 목사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주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행사안내

▣ 월드비전 ▣

등록가족나들이 (명랑운동회)
등록가정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단합 및 복지관과 지역 가정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일시 : 5월 5일(목) 오전 9:00 ~ 오후 4:00
♣장소 : 강원도 공무원연수원(구봉산 근처)

'제16회 피란길 꽃그림 잔치 및 동요부르기 대회'
♣일시 : 2005년 5월 7일(토) 오후12시 - 6시
♣장소 : 춘천시 어린이회관(삼천동 소재)
♣대상 : 춘천지역 초등학생 1-6학년
♣분야 : ① 사생대회 (화지 제공)
② 백일장 (원고지 제공)
③ 동요부르기
- 예선 4. 16(토)
오후 2시 춘천복지관 3층 강당
- 본선 5. 7(토)
오후 4시 춘천시어린이회관
♣참가비 : 3,000원(1인당) 춘천시내 전 초등학교 신청서 배부
♣마감 : 4월 11일(월) *행사당일 현장접수 가능. 단 동요부르기 제외
♣문의 : 033 254-7244 fax 251-1164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1-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이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임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춘천동부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 중앙감리교회 선교교육관 봉헌예배



지난 4월 4일(월) 오전 11시 창립 107주년을 맞는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는 선교교육관 봉헌예배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거종 동부연회 감독,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 김창수감독, CBS 본사 이정식사장, 류종수 춘천시장, 허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교계의 지도자들과 평신도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조각가 심재현장로(서울명성교회)가 제작한 '영광'을 상징하는 기념조형물 제막식도 함께 가졌다. 중앙감리교회 선교교육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예배실, 강당과 세미나실, 공연장을 비롯해 게스트하우스 등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이곳 선교교육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지역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다.

♡ 춘천CCC 대표간사 이 · 취임예배



지난 4월 9일(토) 오후 4시 춘천CCC 대강당 성시홀에서는 춘천 지역의 목회자와 CCC순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표간사 이 · 취임예배가 열렸다. 이날 순 라이프의 찬양을 시작으로 드린 예배는 장기영 나사렛 회장(84학번)이 사회를, CCC 선교국장 윤승목목사가 말씀을,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가 축도를 하였다. 6년간의 춘천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정경호 간사와 초창기 CCC회관을 짓는 사역에 함께했던 이갑용 간사는 다시 6년 만에 춘천CCC사역을 맡게 되었다.

♡ 세계제자훈련원(WDTI) 개관예식



4월 23일(토) 오후 2시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한 세계제자훈련원(WDTI) 개관예식이 있었다. JDM한국대표 손귀연목사의 사회, JDM호남이사장 정은석목사의 기도,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 박찬호 총장의 설교, 춘천교역자연합회장 김유식목사와 허천 국회의원의 축사, 경남지구고른 양종석목사의 축도로 400여명의 지체들이 모인 가운데 개관을 축하하며 예식을 가졌다. 이날 JDM한국이사장 김창환목사(춘천온누리교회)는 건축본부장 신승택장로를 비롯해 김남침신장, 서관목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JDM대표 윤태호목사도 후원자들에게 기념메달을 전달하였다. 앞으로 세계제자훈련원(WDTI)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고, 기독 세계지도자와 캠퍼스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훈련 기관으로 사용될 것이다.

♡ 제6차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총회



지난 4월 1일(화) 오전 11시 춘천동부장로교회에서는 제6차 강원기독교연합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박상호목사의 사회, 원주연합회장 이상선목사의 기도, "연합이 사는 길이다."란 주제로 도연합회장 한재덕목사가 설교를, 전임회장 김창수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총회에서는 재정보고와 2004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정산 보고 및 사업보고, 임원선출이 있었다. 이날 2005년 신임회장에는 춘천동부장로교회 임신영목사가, 총무에는 춘천성결교회 오승룡목사가 선출되었다.

♡ 장로교 연합회 체육대회



장로교연합체육대회가 지난 4월 5일(화) 춘천기계공고(후평동)에서 열렸다. "현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133:1)." 성경말씀처럼 각 교회간의 개교회주의를 허물고 하나되어 연합하고자 정 · 백팀으로 나누어 친선경기를 펼쳤다. 이날 장로교연합회장 김유식목사(한신교회)는 전회장 문정섭목사(사우동교회)에게 1년간의 수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춘천 제2기 아버지 학교



지난 4월 2일(토) 개강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5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된 춘천 제2기 아버지학교가 4월 30일(토) 수료식을 가졌다. 아버지학교는 4주 동안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이라는 주제에 관한 강의를 듣고 각 조별 나눔의 시간과 매주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내와 자녀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성찬식, 촛불예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약 150여명의 수강생이 수료하는 이날 수료식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식의 하이라이트인 세족식과 손결서약식을 끝으로 제2기 아버지학교를 마무리하였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아버지들과 가정의 회복을 기대하며 제3기 아버지학교가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6월 11일부터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 신남감리교회 봉헌예배



신남감리교회는 4월5일 오전 11시 연건평 170평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예배로 성대히 드렸다. 신남교회는 52년된 교회로 2001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공기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안에 헌신하여 이번에 봉헌을 하였다. 이날 원주삼천감리교회의 박거종감독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 '아가피아' 세미나



4월 20일(수) 오전 11시 감촌감리교회에서는 춘천지역의 목회자들과 사모,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아가피아 교육' 세미나가 열렸다. 아가피아 미션' (회장 김철안 목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에서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아가피아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98년 기독대안학교 '금의학교' 설립자인 송명현 박사에 의해 개발돼 전국 수십개 교회에서 독서교사 과정 및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한 독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 대부흥회



4월 23일(토) 오후 6시 춘천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에서는 예수사람은동 주관으로 '청소년 대부흥회'가 열렸다. 청소년들을 통한 학원복음화와 교회 학생부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번 집회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 선생님들이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감리사 이 · 취임예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남지방에서는 4월 28일(목) 오전 11시 창대감리교회에서 감리사 이 · 취임예배를 드렸다. 춘천남지방 감리사로 박인관목사(광염교회)가 이임하고 김명분목사(창대교회)가 취임하는 이날 예배는 선교부총무 백석일목사(시온교회)의 사회, 사회평신도부 총무 한주석장로(광장교회)의 기도, 교육부 총무 손학균목사(석사교회)의 성경봉독, 동부연회 박거종감독의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설교와 축도를 하였다. 김명분감리사는 1995년 4월 남지방 감리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05년 재취임하게 되었다.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암복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밀레니엄 기획사
■ Total Event ■
· 기획 · 제작 · 연출
지역문화예술이벤트 / 공연&콘서트 / 동문회 파티 각종모임 /
연수 및 캠프 / 체육대회 단합대회 / 레크레이션 오픈이벤트
■ Having Hard Ware ■
· 음향 · 조명 · 무대 · 특수효과
대표 김 덕 선
H · P : 016-362-8424
Tel : (033)-241-9996 / 243-9997 Fax : (033)241-9996
e-mail : mevent@kornet.net / 강원도춘천시 소양로2가 172-1

사 설



가정의 달 5월의 마음!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한때 세계 모든 사람이 애창했었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항상 가정에 대한 애정이 일어난다. 가정은 언제나 편히 쉴 수 있고 항상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며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인간의 조직 중에 가정보다 아름다운 조직은 없다.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될듯한 일은 "즐거운 나의 집"의 가사를 지은 존 하워드 펜은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엽전 한 푼 없는 처량한 떠돌이 신세였을 때 이 노랫말을 지었다고 한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못했고 집도 없이 방황하며 "뭐지니"의 감거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시체가 그의 고향인 "워싱톤"에 있는 "오크" 인덕에 이장 되었을 때 무덤이 비로소 그가 가진 유일한 집이 되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일평생 가정이 어떠한 곳인지 모를 법한 그가 어찌하여 그토록 가정을 예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개 가진 자는 가진 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가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가정은 생활의 중심점이다. 가정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을 하는 곳이다. 인류 역사가 에덴의 한 가정에서 출발되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가정은 우리 가족의 영과 육이 자라야 할 터전이요 경건의 교육장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가정은 인간 삶을 지키는 삶의 최초이며 또 최후의 보루이다.

메가트렌즈(Megatrends)라는 책에서는 미래는 정보의 시대로써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 나갈 때 세 가지 상처가 생긴다고 했다. 첫째, 도덕적인 가치관의 상실을 지적했고, 둘째, 가정과 교회가 기관화되어 전통적인 가정의 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는 것, 셋째, 합법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일들이 있다. 에베소서 5~6장에서 명하신 대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위대한 교육자였던 페스탈로찌는 기독교의 위대성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다.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환영해 주는 곳은 가정뿐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다.

❀ 알려드려요

◆예수사랑운동

1) '목동 모임'
일시 : 5월 7일(토) 오후 6:30 장소: 예광침례교회
문의 : 244-5400/018-305-5171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여름수련회를 위한 여호수아 기도회'
일시 : 5월 7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우리조트

2) '학생지도자 교육'
일시 : 5월 9일(월) ~ 10일(화) 오후 6시30분~10시
장소 : CCC회관

3) '전도강습회'
일시 : 5월 23일(월) ~ 26일(목) 오후 6시30분~10시
장소 : CCC회관

4) '전도집회'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 CCC회관
문의 : 254-5776 / 011-9721-7203

5) '캠퍼스별 모임안내'
1) 강원대 : 격주 화요일 소강당 오후 7시
(담당 간사 윤은선 018-396-4159)
2) 한림대 : 격주 화요일 율곡관 오후 6시 30분
(담당 간사 황은경 019-676-1961)
3) 춘천교대 : 매주 화요일 강의동 오후 7시
(담당 간사 공종선 011-9172-4021)
4) 한림의대 : 매주 목요일 의학관 오후 6시 30분
(담당 간사 이강용 010-6428-6361)
5) 정기채플(4개대학연합예배) : 매주 금요일 CCC회관 오후 7시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 동부장로교회
대상 :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선교대회 'OPEN 2005'
일시 : 8월 16일(화)~19일(금)
원서마감 : 인원 2500명 선착순 마감
문의 : 252-1128 / 011-9490-6612

3) 캠퍼스 정기모임 안내
강원대 : 매주 목 오후6:30분 백목관2층 동아리방
(문의 : 조용일 간사 011-234-8517)
한림대 : 매주 목 오후6:00분김유정관 4층 9406호
(문의 : 허정아 간사 010-6217-7533)
춘천교대 : 매주 목 오후6:30분 교내 조흥은행2층 IVF동아리방
(문의 : 이원민 간사 010-6750-8541)

◆JDM

1) 가족의 밤
일시 : 5월 20일(금) ~ 21일(토) 장소 : 대전 금산중앙교회 수양관

2) MISSION '05 발대식
일시 : 5월 13일(금) 장소 : 은누리교회 교육관

3) 중고등부 교사세미나
일시 : 5월 30일, 31일, 6월2일(월,화,목) 저녁 7시
장소 : 세계제자훈련원(WDTI)

4) '각 캠퍼스별 모임안내'
1) 강원대학 : 큐티모임 - 월~금 오전 8시 동아리방(백목관 309호)
기도모임 - 월~금 오후 6시 동아리방(백목관 309호)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강의실)
2) 한림대학 : 큐티모임 - 월~금 오전 8시 동아리방(한생회관 JDM동방)
기도모임 - 월~금 오후 6시(동아리방)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6시 30분(동아리방)
3) 교육대학 : 큐티모임 - 월~금 오전 8시 동아리방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6시 30분 동아리방
4) 한림성심대 :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6시30분 한림대의 연합으로 소그룹 성경공부 - 그룹별로 정해진 시간에

◆IVF

1) '세계학생기도 주간 및 금식기도의 날'
일시 : 5월 2일(월) ~ 7일(토)
5월 4일(수) 세계학생 금식기도의 날

2) 한컴대 '흠 커밍데이'
장소 : 아시아선교원 오후 7시

3) 캠퍼스별 축제
일시 : 5월 둘째주~셋째주 문의 : 252-5200/아시아선교원

4) 캠퍼스 정기모임 안내
- 강원대 :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한세님 간사 011-367-9120), 초원임 활동하시
- 한림대 : 매주 화 목오후6:30분 (문의:이용훈 간사 016-444-7406), 김광민 활동하시
- 춘천교육대 :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박용한 간사 017-374-6865), 양창모 활동하시
- 성심,기능대 : 매주 화,목오후6:30분 (문의:박용한 간사 017-374-6865), 양창모 활동하시

◆어린이 전도협회

1) 봄학기 새소식반 주간 강습회
일시 : 3월 7일(월)부터 5월 21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00-12:30 / 저녁반 7:00-9:30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문의 : 253-1443, 242-8291, 018-292-8839

◆베드로선교센터

1) 세계선교관학교(MPS)
일시 : 3월 12일~5월 14일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 253-3399/019-9903-1148

◆Ani 중보기도학교
일시 : 3월 24일 ~ 6월 16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 교역자연합회
일시 : 5월 9일(월) ~ 10일(화) 오전 8시
장소 : 거제도, 외도, (조선소 견학 예정)
대상 : 춘천지역 목회자 부부
문의 : 252-1717 / 011-361-1995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2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봉사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임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세순교회
시부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은누리장로교회	열린교회	예광침례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퇴계감리교회	퇴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헤이타트 춘천지회
의원기도원	우리여행클럽	엔루어
유림낚실비	보인테라이	디티피아
농협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용 규
이 은 주	이 원 기	이 란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친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리 브 가	

새 주인을 찾습니다



춘천 기독교서점
(내년 인도 신교사 파송예정)
시청 맞은 편

대표 : 유 인 순

☎ 033) 257-5725
019-319-6837

춘천기독교 교역자 부부수련회

연합과 친교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일 시 : 2005년 5월 9일(월) ~ 10일(화)
♣장 소 : 거제도, 외도, (조선소 견학 예정)
♣회 비 : 6만원(목회자 부부), 개인은 4만원
(회비에 교역자연합회 연회비 일만원 포함)
♣입금계좌 : 우체국 202267-01-000611 춘교연(춘천교역자연합회)
♣문 의 : 회 장 김유식 목사 011-361-1995
총 무 송문식 목사 011-9795-5886